



앙코르와트를 만든 자이아바르만 2세는 백성들에게 힌두교의 종교적 의미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하기 위해 1층 회랑에 힌두신화, 크메르 왕국의 전승 등에 관한 내용을 벽화로 새겼다. 아래는 앙코르와트 전경.

/캄보디아 씨엠립=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크루국 왕위 놓고 벌인 비극의 18일간 '형제전쟁'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30>

4부 캄보디아 편

2 크룩셰트라 전투

씨엠립 = 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

'크룩셰트라(Kurukshetra) 전투'는 피를 나눈 판다바 가문과 카우라바 가문이 왕권을 놓고 싸웠던, 역사상 가장 처절한 18일간의 전투다. 판다바가(家)에서는 다섯 형제, 사촌인 카우라바가에서는 가족 100명이 전투에 나서 '100 형제의 싸움'으로도 불린다.

앙코르와트(Angkor Wat) 1층에 들어서면 이 전투를 묘사한 부조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서남쪽 회랑에 있는 부조 도입부에 등장하는 카우라바 가문의 큰 어른이자 총사령관인 비슈마(Bhisma)가 판다바 가문의 셋째이자 신공인 아르주나(Arjunad)가 쓴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한 장면은 가히 백막이다. 수많은 화살을 맞고 쓰러진 그의 주위를 적군인 판다바 형제가 에워싸고 있다. 온몸에 수십여 발의 화살을 맞은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판다바 다섯 형제의 얼굴에서는 존경심이 묻어난다.

위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비슈마의 최후에 대한 설도 분분하다. 비슈마가 머리에까지 화살을 맞았다는 해석과 그가 숨을 거두기 전 아르주나가 화살로 베개를 만들어 머리를 누웠다는 해석으로 엇갈린다. 하지만, 필자는 비슈마가 숨을 거두기 전 판다바 다섯 형제가 베개를 가져다준 것으로 해석했다.

"베개를 가져다 달라"라는 비슈마의 말에 판다바 형제들이 금은보화로 장식된 베개를 가져다가 주지만 그는 쉽게 눈을 감지 못 한다. 아르주나가 화살 3개를 가져와 그의 머리맡에 놓자 비슈마는 편히 눈을

감으며 "비록 적이지만 영혼은 살아남아 판다바를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바라타 왕국의 후계자였던 판다바 가문의 유디슈티라(Yudhishtira)가 카우라바 형제들 중 맏형인 두르다나(Duryodhana)와 나라를 걸고 도박을 하면서 시작한다. 유디슈티라는 두르다나에게 왕국을 잃고 형제들과 함께 수도를 건지며 13년 동안 숲 속을 떠돈다.

이후 유디슈티라는 두르다나에게 왕국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두르다나는 거절한다. 결국 두 가문은 골육상쟁을 택하게 된다.

카우라바와 판다바 가문은 쿠룩셰트라 들에서 군대를 대치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을 벌인다. 평원을 사이에 두고 판다바가 7개 군단과 카우라바가 11개 군단이 대치한다. 1개 군단은 2만2000여대의 전차, 같은 수의 코끼리, 그리고 3배가 넘는 말과 5배가 넘는 보병으로 구성됐다.

북·나팔·고동 소리가 미친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은 울고 코끼리가 지축을 흔든다. 화살 비 속을 넘나들며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형과 아우가 혈연조차 무시한 채 서로 적이 되어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함성과 비명이 뒤섞인다.

이 과정에서 아르주나는 사촌들간의 살육전에 대한 정당성에 고민한다. 하지만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시 전장으로 향한다. "싸워라. 죽여라.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이 신성한 의무다."

비슈마의 죽음으로 전세는 급격히 판다바로 기울었다. 당시 전투에는 교전 수칙이 있었다. 비슈마의 장례 뒤에는 이런 기사도 정신도 무시됐다. 그저 분노에 차오른 군인들의 살육만이 존재했다. 이후 크리슈나의 지략으로 판다바 형제는 연전연승을 거둔다. 18일간의 전투는 두르다나가 철퇴에 맞아 사망하면서 판다바 형제의 승리로 끝난다. 카우라바 형제는 99명이 죽고 단 1명만이 살아남았다.

부조 오른쪽에는 판다바 가문, 왼쪽에는 카우라바 가문의 군대가 조각돼 있다. 말과 마차, 코끼리를 타고 진군하는 두 가문 지도자들과 군대가 서서히 중앙을 향해 진군한다. 군악대의 행진곡에 맞춰 서서히 행진하는 양측 군대는 부조 중앙으로 향할수록 치열한 전투 양상을 보인다.

깊이 패인 양각 부조로 새겨진 이야기는 색색까지 입혀 더욱 두드러진다. 오른쪽에서 돌진해 오는 마차 중 세 번째 마차의 흐릿하지만 팔이 4개인 사람이 비슈누 신의 화신인 마부 크리슈나이고, 그의 마차에 탄 채 활을 겨누는 사람이 주인공인 아르주나다.

사실 양측의 군대는 친인척지간이었기 때문에 전투는 처음에 낭만적으로 진행됐다. 일종의 크샤트리아 계급의 기사도와 같은 것이었다.

"전투는 일출 이후에 시작하고, 일몰까지만 한다. 다수의 전사가 한명을 공격하지 않는다. 두명의 전사는 같은 무기를 가졌거나, 같은 전차에 탔을 때만 한다.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비무장인 군인은 공격하지 않는다."

신화에는 격화되면서 하나씩 교전수칙을 어기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계급의 품위도 비열한 단계 앞에 무너진다. 그 때문에 이 벽화는 단순한 신화 로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반추시키는 기능을 한다.

앙코르와트 1층 회랑 벽면의 부조는 앙코르 전체 유적 중에서도 압권이다. 높이 2m, 가로 187m, 세로 215m의 직사각형으로, 회랑 안쪽은 벽, 바깥은 사각 기둥이 지지하는 형태로 그 위에 지붕이 얹혀있다.

자이아바르만 2세는 1층 회랑 벽면에 11개의 부조를 새겨, 당시 힌두교인으로서의 크메르 백성들이 지키고 배워야 할 덕목이 고스란히 담았다. 동쪽에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힌두교 탄생 설화가, 서쪽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전쟁이야기가 새겨진 것도 특징이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방향에 민감했던 크메르인들의 사상 때문이다.

부조는 사암의 벽면을 양각으로 파서 새겼는데, 수천 년 전 돌을 파서 세공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곽이나 형태가 매끄럽다. 조각이러기보다는 한편의 그림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관리기관인 암사라(AP-SARA) 참(44)씨는 "책이 없던 옛날 백성들에게 왕이 믿는 힌두교와 비슈누 신의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고 믿음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하기에 벽화만큼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릭소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층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1599-0240